

목포권

신안 소금 고품질화 중국산 파고 넘는다

비금농협 세척·탈수 직접 가공처리 96년부터 수도권에 311만가마 판매

값싼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 대량유통돼 국내 염업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 비금농협이 관내 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직접 세척, 탈수하는 등 고품질화에 본격적인 판매사업에 나서고 있다.

29일 신안군 관내 천일염업체에 따르면 비금농협은 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가공처리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중심으로 판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남지역 염전은 3천373ha로 전국 천일염 생산의 68.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신안 섬 지역의 염전은 2천186ha로 전남지역 생산량의 72%에 해당하는 연간 20만여톤의 천일염을 생산해 35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천일염업체는 값싼 중국산 수입소금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 정부와 대한염업조합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염업군 대불산단에 국산소금종합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 업무와 파벌싸움 등으로 염업조합이 기존 업무마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 비금농협(조합장 김형석)은 신안 섬지역에서도 천일염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금면 관내 720ha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고품질화해 직접 판매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금농협은 소금을 세척, 탈수에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봄과 가을에 생산되는 소금 등 품질이 낮은 소금과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생산된 소금을 별도로 보관해 관리하고 소금창고 주변 청결유지와 해초 제거 목적으로 농약사용을 절대 금지토록 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또 천일염 자가 품질검사 및 스티커 제작업무를 대행처리해 소비자들 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비금농협은 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품질 천일염 311만7천550가마(20·

30kg들이)를 328억5천40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금농협은 올해도 관내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비금산 천일염 20kg들이 20만 가마와 30kg들이 85만 가마를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판매할 방침이다.

비금농협은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7천만원을 들여 비금농협마트 옆 공터에 부지 100평, 건평 80평 규모의 초현대식 자동세척과 탈수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한편 비금농협은 관내 천일염 생산 주민들에게 환원사업 일환으로 천일염 생산지 일선 입구 비포장도로에 폐자갈 25대 차량 80대분을 구입 굴삭기 지원 등을 위해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비금농협이 관내 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세척, 탈수시켜 품질을 고급화한 소금을 차량에 적재하고 있다.

신안 천일염 칼슘 등 미네랄, 수입염보다 3~10배 많아

신안 천일염은 서해안의 청정한 바닷물을 원료로 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개펄지역의 염전에서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쳐 농축한 자연천화적 소금이다.

이에 따라 염도가 호주·멕시코산 97%, 중국산 88%인 반면, 신안 천일염은 80% 정도여서 우리 고유의 음

식맛을 낼 수 있는 신토불이 식품이기도 하다.

신안 천일염은 인체에 좋은 각종 천연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성분이 수입염에 비해 3~1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

천일염으로 감자를 담글 경우 절임 시간이 6~7시간이, 수입염은 9~10

시간이 걸린다. 중국산으로 김치나 젓갈, 장을 담그면 쓴맛이 강하게 나고 쉽게 물러진다.

그러나 현실은 국산의 약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저가의 중국산 소금이 국내 소금시장의 70%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목포시 29개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목포시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돼 차원높은 회화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목포시는 지난해 8월 14개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 데 이어 올 4월과 5월에는 각각 5명과 10명을 추가 배치해 29개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미항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원어민 영어교

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전남도교육청이 캐나다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현지 적응교육을 마친 뒤 27부터 목포시내 10개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국가 희유금속 광산물 비축창고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들어선다

향후 10년간 2천억원 투자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희유(稀有)금속 광산물 비축창고와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들어서게 돼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는 지난 6개월여 동안 국가사업인 희유금속 광산물 비축창고 건립위 치선정을 놓고 국내 다른 항구도시와 뜨거운 유치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 25일 목포신항배후부지가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들어서게 될 국가 희유광물 비축창고는 광산물 파동 및 가격폭등 등에 대비해 국가산업보호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전략비축계획에 따

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해외자원 개발과 연계해 첨단산업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 국내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희유광물의 자국적인 공급능력 확보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약 2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요 비축물로는 니켈, 텅스텐 등 13 광종 14품목의 희유금속 광산물이 다.

신항배후부지 1만2천여평에 8천평 규모로 건립될 비축창고는 올 하반기에 착공, 국내 수요량의 2개월분 약 8만5천 630t을 비축하게 되며 향후 비축창고 추 가 건립이 예상돼 목포신항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는 물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舊철도건널목 ~국도 2호선간 도로 612m구간 폭 25m로 확·포장

99억원 들여 내일 착공

목포시 하당동 구 철도건널목 ~국도 2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오는 31일 착공된다.

목포시는 석현공단 일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청호시장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는 등 신축 도심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구 석현 철도건널목 ~국도 2호선간 612m 구간을 현재 폭 10m에서 25m로 확·포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번

공사는 이미 확보된 42억원의 사업비로 1차 보상이 완료된 국도2호선~청호시장간 공사를 먼저 추진하며 오는 200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구 철도건널목~국도 2호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영암·해남·진도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과 전담차량, 유턴 벤처빌딩과 주변 대단위 아파트 주민 등의 통행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이다"며 "특히 석현 공단내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돼 공단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ilee@

/지역 단신/

'진도개를 다시보자' 학술세미나

진도군은 진도회화와 함께 '진도개를 다시보자'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향토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진도개시협연구소가 주관하고 진도회화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개미 해 개와 관련된 민속(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연구과장 천진기)' '애원동물의 위치와 가치 조명(공주대학교 박영석교수)' '진도개산업화 방안(동양인재대학교 강형동교수)' '진도개 품종의 특성과 보호육성연혁(진도개시협연구소 이계웅)'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소화기 300대 목포소방서에 기증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는 최근 시군지부장실에서 목포·신안관내 11개 지역농협과 시군지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소화기 300대를 구입, 목포소방서에 기증했다.

목포신안군 지부는 올 하반기에도 기금을 조성해 소화기 300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희 지부장은 "소화기보급운동 동참을 계기로 고마운 농협, 꼭 필요한 농협, 변화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전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소방서는 신안 도서지역 소화기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장산면에 '섬 문화센터' 건립

신안군 장산면에 '섬 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신안군은 9억5천만원의 들여 장산면 도창리 64-9번지 일대에 연면적 1천㎡, 2층 규모로 공연장과 미술관, 전시관, 관리실 등을 갖춘 문화센터 건립공사를 다음 달 초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이 문화센터가 개관하면 문화시설이 전무한 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 예술인들에게 문화활동 공간 제공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장산면에는 장산노수군락지를 비롯 백제서식고분 등 문화유적에 '장산노래 전수관' 등이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population and other statistics for various reg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featuring monthly real estate seminars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주 특별한 제안' (A very special offer) highlighting a prime commercial area and a combined hospi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지도' (National Map) featuring land acquisition information and a real estate agenc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중앙국토개발건설' (Central National Development Construction) listing various property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부동산컨설팅' (GS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용한공인중개사' (Yonghan Real Estate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